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1. 4 (금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김 민 / 사무관 장용희 (Tel. 044-200-2533)
<p>* 엠바고 : 즉시 사용</p>			

총리-부총리 협의회, 4일째 민생현안 점검 이어나가

- “황 총리, 주말집회 관련 세심한 관리 및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 당부”
- “김장채소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·적극적 수급대책 추진”
- “청년일자리 대책,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시로 점검·보완”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1.4(금)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, 제4차 ‘총리-부총리 협의회’를 개최하고, 경제·사회·외교안보 등 분야별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였다.

* 참석자 : 경제·사회 부총리, 외교부·국방부·행자부·고용부 장관

□ 황교안 총리는 “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와 함께 故백남기 농민 영결식이 예정되어 있고, 이와 동시에 주한 외국공관의 외교·문화행사*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”고 언급하면서,

* 2016 주한 외국대사관의 날(11.4~6, 광화문광장)

- “무엇보다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,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”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하였다.
- 아울러, “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,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원만하고 평화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정부는 올해 김장철 배추의 공급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, 수급 안정물량 2.1만톤을 확보·비축하고, 김장성수기(11월 하순)에 집중 공급하기로 하였다.
 -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, 가격 급등 시에는 추가적인 비축물량 공급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
 - '17년까지 고용복지센터를 100개로 차질없이 확충하되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, 워크넷을 일자리 종합포털로 확대하기로 하였다.
 - 공공부문에서 청년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'16년말 만료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2년 연장하고, 육아휴직·시간선택제 확산에 따른 빈 일자리에 청년을 신규채용해 나가기로 하였다

- 황 총리는 “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청년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,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·보완해 나갈 것”을 주문하였으며,
 - 국회 차원의 저출산 대책 논의와 관련해서는, “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·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아울러,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파리협정(11.4, 공식 발효) 등 총 15건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만큼, 관련 대책 수립 및 입법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